

속옷의 겉옷화 현상(outerization)의 미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의미

이성희 · 조규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 고려대학교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명예교수*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Sociocultural Meanings of Outerization

Lee Sunghee · Cho Kyuhwa*

Ph.D.,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outerization phenomenon of contemporary fashion. Outerization, transforming underwear as outerwear, is one of the most dominant and widespread fashion trends in the dawning of new millenium.

Fashion always exists for living body and tributes to express idealized beauty of human body and aesthetics of the era. If so, exploring the formative expression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outerization would be an meaningful guideline to deduce changed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body of the 21st century.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f fashion collections such as Paris, Milan and New York which were held the first decade of new millenium, from 2000 Spring/Summer to 2009 Spring/Summer. The styles expressing outerization were selected and assorted based on the main formative expression. The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The way of expression of outerization is categorized into 4 parts ; Transition, Exposure, Transparency, and Deconstruction.

Aesthetic Characters of outerization is classified 4 assortments as well ; Eroticism, Fun with parody and kitch, cyber culture, Gender politics, and Power fetish.

Eroticism is the most clearly identified one. Coming out of underwear imply naked body itself, so it has erotic appeal. Fun is the second character. A pleasant sensation from the outerization of undergarments maximizes a disposition of play from parody, kitch, and cyber culture. The third is Gender Politics and it introspects how the society consumes woman body in history and modern times. Power Fetish, the last one, speaks for the female body with changed vision for femininity underneath the sphere of influence of feminism and post modernism, then emphasizes the subjectivity and independence of woman.

From the research above, this study will help to understand the overwhelming outerization phenomenon and contribute to expansion of the horizon of the study of fashion aesthetics. It will serve fashion creative source through various outerization cases as well.

Key Words : Outerization(속옷의 겉옷화), Parody(패러디), Kitch(키치), Cyber Culture (사이버 컬처), Gender Politics(성 정치성), Power Fetish(파워 페티시)

1. 서론

격동의 20세기를 지나 새로운 밀레니엄에 들어선 첫 10년간 패션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속옷의 겉옷화이다. 신체 노출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가 높아지고 패션을 통한 개성 표현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속옷은 위생상의 필요라는 기능에서 탈피, 옷차림에 의외성과 신선미를 제공하는 특별한 아이템으로 폭넓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한 시대의 유행 스타일이 된다는 것은 그 형이나 색이 당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 갈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시대의 복식미는 그 시대의 육체미의 연장이기도 하다¹⁾. 따라서 속옷의 겉옷화가 2000년대 첫 10년을 특징짓는 패션 현상이 되었다는 것은 패션과 신체, 여성성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미의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추론을 낳는다. 속옷과 겉옷의 영역을 정확히 지키고 감춤으로써 하나의 미의식을 구축하던 시대에서 바야흐로 겉과 속의 영역을 허물고 드러내 옷의 요소의 일부로 신체가 참가하기를 바라는²⁾ 새로운 미의식의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속옷의 겉옷화 현상의 풍부한 미학적 사회문화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이 담고 있는 21세기 패션 미의식을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논의한 선행연구가 적지 않되 대부분 속옷의 발달사로 접근한 연구이거나

이를 모티브 삼아 디자인 개발을 시도한 연구로 나뉘어 졌다. 전자의 연구로는 윤진아³⁾가 여자 속옷의 역사적 고찰에서 출발해 속옷의 겉옷화를 위한 패턴 제작에 나섰다. 김지연⁴⁾은 이상적 신체조형을 위한 여성 속옷의 구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양숙희·이의정⁵⁾은 속옷을 기존의 남성의 성적 판타지에 근거한 페티시 패션 사례로 다루었다. 후자의 연구로는 변소정⁶⁾, 조영란⁷⁾, 고영아·최현숙⁸⁾ 등이 있으며 주로 에로티시즘의 고양을 위한 디자인 개발 소재로 접근하였다. 또 이상례⁹⁾는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세기말 현상으로 파악하였으나 21세기 들어서 이 현상은 오히려 더 대중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도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속옷의 겉옷화 현상에 담긴 21세기 달라진 미의식과 여성성 및 몸에 대한 변화한 시각을 포착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를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첫 10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속옷의 겉옷화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여 이 현상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첫 10년의 달라진 성 및 신체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유행 분석을 넘어서 패션 현상이 함축하는 사회문화적 미학적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패션 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

1.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2000년 봄여름컬렉션부터 2009년 봄여름컬렉션까지 파리와 밀라노, 뉴욕에서 열린 여성복 패션컬렉션으로 한정했다. 유명 패션하우스들의 시즌 컬렉션이 발표 즉시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는 ‘모드의 국제화’ 시대에는 세계적인 속옷의 겉옷화 현상 역시 이들 컬렉션의 영향이 지대하다. 연구방법은 속옷의 겉옷화가 표현된 이미지 1,250장을 선별¹⁰⁾, 1차 자료로 활용해 속옷의 겉옷화 현상의 조형적 표현을 양상을 살펴보고 다양한 문헌연구를 거쳐 이 현상의 미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모든 컬렉션 이미지 자료는 패션정보업체(주)PFIN의 허가아래¹¹⁾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퍼스트뷰코리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II. 속옷의 겉옷화 현상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속옷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속옷의 형태나 소재, 장식 기법, 부자재, 이미지 등의 요소가 겉옷 디자인의 모티브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속옷의 형태와 요소를 차용했으나 엄연한 겉옷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란제리 룩’ ‘코르셋 룩’ ‘뷔스티에 룩’ ‘속옷 패션’ 등으로 불린다.

현대패션에서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등 선구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1980년대 보디 컨셔스 룩(Body Conscious look)의 한 표현으로 등장하였다. 보디 컨셔스는 신체를 의식하는 의미로 여성의 신체가 갖는 실루엣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

속옷은 본래 겉옷 속에 받쳐 입는 의복류를 총칭하며 맨 몸에 바로 입혀진다는 점에서 육체의 연장으로 인식된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있되 나체와 성장(盛裝)을 가르는 속옷의 존재는 속옷에 본연의 기능 외에 유혹과 관음의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성적 은유를 부여하였다. 성기와 가슴,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가릴수록 속옷은 그러한 숨겨진 부위들과 연계되었고 에로틱한 함의를 갖게 되

었으며 더욱 더 성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¹³⁾. 속옷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숙성과 청결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은밀하고 사적인 성적 매력의 발산이라는 이중의 상징성을 갖게 된 배경이다.

속옷의 이러한 이중성은 디자이너들에게 감춰져야 하제공속옷을 드러냄으로써 충격 효과를 거두는 한편 복식에 젠더(gender, 성)와 신체, 시대성 등에 관한 풍부한 담론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었다. 1990년 장 폴 고티에가 팝스타 마돈나의 세계 순회 콘서트 '블론드 앰비션(Blond Ambition)'을 위해 제작한 무대의상을 보여주는 <그림 1>¹⁴⁾은 원추형 브라컵과 가터벨트를 일체화시킨 코르셋 룩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고티에는 1984년부터 코르셋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을 계속 발표했지만 톱스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은 것은 처음이었다. 속옷과 겉옷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아래 제작된 코르셋 룩은 속옷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노출될 수 없다는 의복착장의 오랜 전통을 깨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성적인 암시를 노골화하는 전략을 통해 고티에와 마돈나는 코르셋에 부여되었던 부정적 이미지, 즉 남성의 관음적 시선과 여성의 성적 대상화(objectification)라는 가부장제적인 관계를 전복시켰다. 마돈나의 코르셋 룩 이후, 남성적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에 굴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¹⁵⁾.

2000년대 들어 속옷의 겉옷화는 패션에 에로티시즘을 강조하고 논란을 일으키며 해체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시대의 사상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 2>는 속옷의 하나인 올인원(all-in-one)이 그 자체로 겉옷이 된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 3>은 대표적인 속옷 소재인 레이스를 트렌치코트 위에 프린트함으로써 속옷의 겉옷화 현상의 대중적인 활용도와 확장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겉옷에 속옷 이미지의 다양한 채용은 물론 속옷 자체도 공공장소에서의 착용을 전제로 디자인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¹⁶⁾¹⁷⁾. <그림 4>¹⁸⁾는 란제리업체들이 제품을 뷔스티에 룩을 연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사례이며 <그림 5>¹⁹⁾는 브라지어 끈이 패션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1> 장 폴골디에 1990
- Infra Apparel, p.51.

<그림 2> 알렉산더 맥퀸 07SS
- firstviewkorea

<그림 3> 크리스찬 디올 06FW
- 크리스찬 디올 코리아

<그림 4> 뷁스티에 룩
- 섹시쿠키

<그림 5> 패션브라 끈
- pinkfin.co.kr

III. 속옷의 겉옷화의 조형적 표현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지배적인 표현 위주로 분류한 결과 크게 전이, 노출, 투시, 해체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 전이(Transfer)

전이는 속옷을 의도적으로 겉옷 위에 입는 착장 위치의 전이와 속옷의 디자인을 그대로 혹은 일부분이나 특정 요소를 채택해 겉옷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을 포괄한다. 전이는 마틴(Martin)과 코다(Koda)가 언급한 '한 시대의 속옷은 다른 시대의 겉옷이 되기도 하는'²⁰⁾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복의 구성이나 착장 원칙은 항상 당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속옷과 겉옷의 착장 순서를 뒤바꾸는 것은 통상 전위성과 시각적 충격 효과를 통해 옷입기의 규범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해당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관심을 환기하고 유희적인 표현을 하는 데도 이용된다.

겉옷에 속옷의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여체의 관능미를 극대화하고 로맨틱한 감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새천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가장 선호된 스타일이다. 코르셋의 심을 박아 넣은 봉제선을 장식적으로 활용하거

나 타이트레이싱을 여밈이나 단순 장식을 위해 겉옷에 사용한 사례들은 패션에 성적인 긴장감을 부여하는 용도로 애용되었다. 레이스가 달린 슬립과 캐미솔 등 여성 라제리류는 로맨틱하고 관능적인 감성을 자아내는 아이템으로 겉옷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여성이나 아동용 속바지였던 블루머는 성인 여성을 위한 초미니 팬츠나 보디 슈트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2. 노출(Exposure)

노출과 투시는 모두 속옷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속옷 자체가 겉옷으로 변신하는 전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출을 '겉옷 속에 입은 속옷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속옷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규정 하였다. 이는 속옷과 겉옷의 착장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기성 규범에 도전하는 착장의 전이 보다는 덜 충격적이지만 유희적이고 퇴폐적인 느낌은 더 강하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속옷의 노출은 여성 파워의 확산과 인체의 물신화 경향과 맞물리면서 자신감의 표출, 패션의 즐거움을 더하는 유희적인 요소로도 새롭게 인정받는 추세다. 불과 5,6년전 만 해도 브래지어 끈이 노출되는 것을 여성의 수치 혹은 비정속성으로 비난했던 사회가 노출을 전제로 하는 패션 브라끈에 관대해졌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3. 투시(Transparency)

투시(透視)의 사전적 정의는 ‘막힌 물체를 한히 꿰뚫어 봄, 또는 대상의 내포된 의미까지 봄’²¹⁾이다. 또 정상적인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인지하거나 봉투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따위를 알아맞히는 일 등을 지칭한다. 속옷 혹은 속에 입은 옷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투시는 노출과 출발점을 공유하지만 표현 양상은 다르다. 투시는 직접적인 노출은 아니면서도 의도적으로 속옷 또는 신체를 드러낸다. 투시에 있어서 겉옷은 속옷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겉옷의 조형미를 살리기 위한 하부구조 역할을 했던 속옷이 오히려 스타일의 주체가 되고 겉옷이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물러난 가치 전도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관능미와 함께 옷과 신체, 속옷과 겉옷, 안과 밖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이유이다.

투시는 관능과 공격적인 섹스어필을 보여주는 데도 자주 사용되며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우월사회의 관음적 시선을 포착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젓가슴의 양감과 도드라진 유두, 배꼽과 아랫배의 부드러운 윤기 등을 번들거리는 에나멜 소재로 표현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상체를 완전히 뒤덮으면서 동시에 발가벗은 나체를 묘사하는 이중의 알레고리를 형성한다.

4. 해체(Deconstruction)

해체는 20세기 말 이후 패션 경향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용어이다. 패션이 자신의 구성 요소와 중심 뼈대를 드러내고 고찰하려는 경향을 지닌다²²⁾는 가정에 토대를 둔 해체주의 패션은 의복의 구성적 규범에 저항하고 새로운 모드를 만들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²³⁾.

해체주의는 철학적으로는 1960년대 후반 등장한 후기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주도한 후기구조주의는 의미를 안전하고도 만족한 상태로 잡아 둘 수 있는 숨겨진 구조가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며 의미는 항상 변화하고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해석인 끊임없는 흐

름의 순간적 정지일 따름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말/글, 자연/문명 등 대립쌍은 각자 그 의미를 얻기 위해선 상대방의 의미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대립쌍은 단순 대립개념이 아니라 한 쪽이 다른 쪽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취한다고 보았다. 데리다는 이런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해체적 관점으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이것이 어떤 특정한 폭력, 즉 남성이나 여성 또는 성적 특질 같은 일련의 모호한 가정들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

후기구조주의가 비평적 텍스트 읽기의 수단으로 제시한 해체는 복식사적으로는 1980년대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등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실험적으로 시도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속옷의 겉옷화를 비롯 전위적인 패션 경향을 설명하는 잣대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를 속옷의 겉옷화 현상 중 속옷의 구조와 뼈대를 해체해 보여주는 작업을 통칭하는 데 사용한다. 이는 전이 중 두 번째 항인 ‘속옷 디자인의 채용’과는 분리되는 개념으로 속옷 자체의 구조를 해부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패션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모드를 형성한 작업들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속옷의 겉옷화 현상의 조형적 표현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IV. 속옷의 겉옷화의 미적 특성

일반적으로 속옷의 겉옷화는 에로티시즘의 관점에만 치우쳐 분석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관능성 외에도 신체와 성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력 향상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속옷의 겉옷화 현상의 미적 특성을 관능성(Eroticism) 외에도 유희성(Fun), 성 정치성(Gender Politics), 파워 페티시(Power Fetish) 등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다. 또한 유희성은 다시 패러디와 키치, 디지털 사이버 문화에 의한 유희성 등 3개 독립된 항목으로 나누어졌다.

<표 1> 속옷의 겉옷화의 조형적 표현

	조형적 표현	특성	대표적 사례
전이	착장 위치 속옷을 겉으로 의도 적으로 꺼내 입음	전위성 유희성 시각적 충격	 09SS 장 폴 폴티에 0506FW 줄리앙 09SS A.F.빈 대보스트 06SS 장 폴 폴티에 0506FW 안드 소피 백
	디자인 채용 소재, 패턴, 기능 등 속옷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겉옷에 가 져옴	관능성 로맨티시즘	 0506FW 프로엔지슐러 0708FW 스텔라 맥카 트니 07SS 맥카 지방시 0304FW 베르사체 02SS 스텔라 맥카트니
노출	속옷의 일부를 노출 해 속옷의 존재를 드러 냄	도발성 유희성 퇴폐성 자유분방함	 09SS 니나 리치 04SS 쥘 스튜어트 0708FW 미우 피우 0708FW 알렉산더 왕 04SS 프라다
투시	노출은 아니지만 의 도적으로 속옷 또는 신체의 존재를 환기 시킴. 속옷을 보여 주기 위 한 도구로서의 겉옷.	관능성 퇴폐성 전위성 가치전도	 01SS 이브 생 로랑 08SS 질 샌더 09SS 안토니오 로페즈 09ss 지방시 03SS 이브 생 로랑
해체	속옷의 구조와 뼈대 를 해체해 과장되게 보여주는 작업을 통 칭	전위성 풍자성	 09SS 아만다 바시 06SS 크리 스티븐 01SS 구찌 0304FW 키 라모쉬 0809FW 프라다

※사진제공 (주)PFIN

1. 관능성(Eroticism)

관능성 즉 에로티시즘(eroticism)의 사전적 정의는 ‘색정적(色情的) 이미지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환기하는 경향’이다. 에로티시즘의 어원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 에로스(Eros)에서 유래하였으며 성의 감각적 측면을 통칭한다. 즉, 성 행위는 그 자체로는 에로틱하지 않지만 그것을 환기하거나 이미지화해서 암시하는 것은 에로틱한 것으로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에로티시즘의 대중화이다²⁵⁾.

역사적으로 성적 본능은 의복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다. J.C.후류겔(J. C. Flügel)은 「의복심리학(The Psychology of Clothes)」에서 패션의 동기를 에로티시즘으로 파악하면서 “의복은 착용자의 성적인 매력을 향상시키고 신체의 성기 부위에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²⁶⁾고 주장하였다. 또 제임스 레버(James Laver)는 저서 「의상과 패션(Costume & Fashion)」에서 패션의 변천 배경을 ‘섹스존의 이동’(shifting of erogenous zone)으로 보면서 “중요한 것은 패션이

옷을 통해 어떻게 신체를 에로틱하게 노출하느냐의 문제”²⁷⁾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여성 패션이 역사적으로 유혹의 수단으로 취급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에로티시즘의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속옷의 겉옷화는 1980년대 장 폴 고틀리에가 역사적 유물이었던 코르셋에 현대성을 부여하고, 1990년대 구치의 디자인을 맡았던 톰 포드가 섹스(sex)를 컬렉션의 전면에 내세운 이래 성적 상징의 노출을 통한 관능성의 발산으로 해석되었다. <그림 6><그림 7><그림 8>은 신체를 조이고 압박해서 육감적인 몸매를 만드는 속옷류인 파운데이션이나 에로틱한 연상을 자극하는 섬세한 레이스의 활용을 통해 성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복식의 역사가 이 의류 품목에 부여한 관능성을 잘 드러내준다. <그림 9>는 비치는 니트 소재의 상의 아래 팬티스타킹의 허리선을 섬세한 농담을 살리며 보여줌으로써 자극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그림 6>
베르사체 07SS
-firstviewkorea

<그림 7> 구찌
03FW
-firstviewkorea

<그림 8>
로베르토 까발리
08SS
-firstviewkorea

<그림 9> 니나 리치
09SS
-firstviewkorea

<그림 10>
마르탱 마르지
엘라 07SS
-firstviewkorea

2. 패러디, 키치, 사이버컬처의 유희성 (Fun with parody, kitch, cyber culture)

요한 호이징거(Johan Huizinga)는 저서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어떤 실용적 목적 없이도 행위 그 자체를 즐기는 유희 충동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예술과 문화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에게 예술은 하나의 놀이이며 문화 또한 놀이의 산물이라고 파악한 것이다²⁸⁾.

그런데 이 놀이는 순수한 생리현상이나 심리적인 반사작용 이상의 것이다. 즉 놀이는 하나의 의미 기능이며 따라서 놀이에는 뜻이 있다고 파악했다. 단순히 어린이와 같은 본능적 차원에서의 놀이나 유희의 개념이 아니라 유희를 창출하는 주체의 의도적인 조작이나 대치, 왜곡 등이 개입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패션에서의 유희성은 여가 시간의 증가와 스포츠와 레저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의복의 캐주얼화 경향이 가속화하면서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며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나 게임 캐릭터 등이 패션에 인용되며 큰 인기를 모았다²⁹⁾.

2000년대 들어 패션의 유희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며 이는 비단 패션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 현상이기도 하다. 유머러스한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능률을 향상시키는 펀(fun) 경영이 기업 현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신용카드는 물론 이동통신업체, 외식업체 등의 방송용 광고도 재미를 줄 수 있는냐가 제작 포인트가 되었으며 웃입기는 규범 대신 즐거움이 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1) 패러디(parody)에 의한 유희성

패러디는 전통적인 미학적 기준이나 관습에서 나온 것을 모방이나 흉내를 통해 풍자 또는 조롱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들의 가식과 모순을 꼬집어 내 정신적 쾌감과 웃음을 자아냄과 동시에 일상적인 삶에 산재해 있는 부조리함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과 삶에서 받는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표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패러디의 이러한 풍자 및 비판 정신은 유희를 창출하

는 주체의 의도적인 조작이나 대치, 왜곡 등이 개입되는 유희성의 원칙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패러디의 창조적 비판 기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은 2000년대 주목받고있는 마르탱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와 상업적 성공과 지명도에서 앞선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의 작업에서 엿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자의 기법인 눈속임 기법(trompe l'oeil)을 응용한 마르지엘라의 작업 <그림 10><그림 11>은 상체에 브래지어만 하고 있거나 원피스 드레스를 반쯤 벗고 있는 듯한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두 작업 모두 살색의 보디스위에 검은색 브래지어 모양이 프린트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르지엘라의 작업은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패러디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리고자 하는 것이 몸인지 속옷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브래지어 무늬가 없다면 살구색 상의 정도로 취급되었을 옷이 이 무늬(브래지어)의 존재로 인해 갑작스럽게 나체 상태로 인식되는 반전은 데리다(J. Derrida)의 표현을 따르면 의미의 차연(differance)³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데리다는 어떤 대립 쌍의 의미는 각자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의미는 항상 지연되어 스스로를 결코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며 항상 동시에 존재하고 부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지엘라의 작업에서 이러한 차연은 브래지어와 상의, 즉 속옷과 겉옷, 옷과 신체, 벗음과 입음 등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되며 옷을 입는다는 행위에 대한 전복적인 사유를 선사한다.

마크 제이콥스는 옷을 입는 행위 또는 동기에 대한 패러디를 시도한 마르지엘라와 달리 속옷의 겉옷화 자체를 패러디 대상으로 삼았다. <그림 12><그림 13>은 브라와 팬티의 모양이 정확히 그 품목들이 입혀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위에 프린트된 아이템들을 보여준다. 이런 표현법은 충격적인 착시 효과 대신 장난스러운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며 속옷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제시킨다.

제이콥스의 작업이 속옷의 겉옷화라는 민감한 주

제를 다루면서도 한없이 경쾌한 것은 그가 속옷에 역사적으로 부여된 관능성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속옷의 노출이 신체의 노출과 같은 관능성을 획득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체에 밀착되고 신체의 선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브라지어의 노출은 가슴의 융기를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성적인 자극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이콥스의 작업에서 속옷의 이미지는 일체의 융기와 이음선이 없이 최대한 단순화, 평면화되어 있다. 옷감은 밀착하는 대신 적당히 신체로부터 떨어져 몸매의 굴곡을 오히려 감춘다. 제이콥스는 속옷의 겉옷화 현상에 부여된 관능성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겉옷화 현상에 대한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고정관념을 해체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이밖에 <그림 14><그림 15><그림 16>은 속옷이 겉옷화하는 대신 겉옷의 표면 장식으로 사용되는 참신한 패러디 감각을 보여준다.

2) 키치(Kitsch)에 의한 유희성

키치(Kitsch)는 '속악한 것', '가짜' 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이비' 등을 뜻하는 예술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용어의 유래나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즉 영어의 '스케치(sketch)' 또는 '진흙을 문대며 놀다'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키첸(kitchen)'에서 유래했다는 주장³¹⁾과 '값싸게 만들다'는 의미의 메클렌부르크 방언 '베르키첸(verkitschen)'에서 유래했다는 이론, '건방지고 우쭐대는 것'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키체샤(keetcheetsya)'에서 왔다는 이론 등이 있다³²⁾. 이들 어원은 키치가 가볍고 부정적이며 유희적인 특성을 갖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키치는 단순히 저속한 미술품을 넘어 일상적인 예술과 문화를 의미하는 폭넓은 용어로 쓰이며 특히 패션에서는 키덜트 패션과 팝아트 패션이 키치적 재미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패러디와 달리 키치 패션에서 나타나는 유희성이 가치의 전이나 기존 관념에 대한 비판을 의도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스타일들이 비교적 단순한 혼성모방과 차용을 통해 쾌락을 얻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물론 키치 본연의 싸구려, 미적 부적절성 등의 이미지는 가상에 불과하다. 오늘날 키치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많은 컬렉션 아이템들은 사실상 매우 값비싼 패션 하우스의 창조물이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키



<그림 11>
마르탱
마르지엘라 07SS
-firstviewkorea

<그림 12> 마크 제이콥스 08SS
-firstviewkorea

<그림 13> 마크 제이콥스 08SS
-firstviewkorea

<그림 14>
안토니오 베라르디
09SS
-firstviewkorea

<그림 15>
크리스찬 디올
01SS
-firstviewkorea

치이기 때문이다. <그림 17>의 디올 드레스는 18,19세기 여성의 몸과 성적인 자유를 구속하던 코르셋과 가터벨트가 하늘하늘한 시폰 드레스 위에 반짝이 장식선으로만 남은 디자인을 통해 키치적 감성을 보여준다. 또 <그림 18>의 루이스 그레이 드레스와 <그림 19>의 디올 드레스는 만화적 상상력이 개입된 키치 패션의 예를 보여준다.

3) 사이버컬처(Cyber culture)에 의한 유희성

2000년대 첫 10년 패션의 특이한 양상은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로맨티시즘의 득세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이다. 1960년대 우주시대의 재현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경향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인간사회에 새로운 우주로 다가온 사이버 공간과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미디어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사이버 문화의 융성은 오늘날 물질 세계와 가상 세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면서 인간의 삶과 정신적 사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상현실³³⁾, 즉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문화는 그 안에서 가상 신체를 부여받고 가상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문화와 삶을 공유하는 등 가상의 이미지가 현실보다도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되는 무기나 아이템이 현실의 공간에서 거래되는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가상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이버 문화의 발달은 21세기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디지털 문명의 고도화가 낳을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대부분의 SF영화에서 미래인들의 옷은 신체에 극도로 밀착되면서 최소화하거나 신체의 굴곡을 과장되게 드러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달에 인간이 착륙했던 1960년대의 패션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열광을 표현하기 위해 메탈릭한 금속성 소재나 반짝이는 에나멜 소재를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새로운 탐험의 장소인 사이버 공간에 대한 열광도 반짝이는 금속성의 광택 소재나 하이테크 풍의 소재, 기하학적 형태 등으로 귀결되었다. 발렌시아가의 <그림 20>, 후세인 살라얀의 <그림 21>, 루이스 골드윈의 <그림 22>는 기하학적 재단과 번들거리는 에나멜 가죽소재 및 금속성의 이미지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 사이버공간의 여전사 이미지를 포착했다.



<그림 16> 레이카와쿠보 07SS -firstviewkorea
 <그림 17> 크리스찬 디올 06SS -firstviewkorea
 <그림 18> 루이스 그레이 08FW -firstviewkorea
 <그림 19> 크리스찬 디올 03FW -firstviewkorea
 <그림 20> 발렌시아가 04SS -firstviewkorea



<그림 21>
후세인 살라얀
07FW
-firstviewkorea

<그림 22>
루이스 골드윈
09SS
-firstviewkorea

<그림 23> 장
폴골티에 01SS
-firstviewkorea

<그림 24>
알렉산더 맥퀸
04SS
-firstviewkorea

<그림 25>
알렉산더 맥퀸
07SS
-firstviewkorea

3. 성 정치성(Gender Politics)

성(性)은 남녀의 성적 차이를 가리키지만 이 개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우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생물학적 차이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 이외에도 사회적 차이가 있으며 이렇게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을 젠더(gender)라고 부른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 4차 세계여성대회는 남녀의 성적 구분을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한 섹스(sex) 대신 젠더로 표현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남녀의 성적 차이를 인정하되 그 차이가 차별로 진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를 젠더라는 개념 안에 반영한 것이다³⁴⁾.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성 정치성(gender politics)의 문제를 다루었다.

극단적인 여성 해방론자들에 의해 ‘여성의 적은 남성’으로 단순화되었던 사고는 1970~80년대를 지나면서 인권평등 사상과 사회의 모순을 특정 집단 사이의 갈등 대신 그러한 갈등을 잉태하는 구조에서 찾는 구조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과 맞물리며 남성 역시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희생양이며 양성이 평등

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따라서 전통적 가부장제나 획일화된 여성성/남성성의 대치 등 일상의 문화에 내재하는 성차별이나 획일화된 성개념 등을 타파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유와 시도를 성 정치성으로 총칭하였다.

패션의 성 정치성은 역사적으로 여성의 속옷이 여성에 대한 사유화와 억압을 위한 도구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중세시대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착용을 강요했던 정조대는 아내의 성(性)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18, 19세기 인체 내 장기의 손상과 체형의 회복 불가능한 왜곡을 가져왔고 종종 죽음을 부르기도 했던 코르셋의 착용 역시 여성 신체의 조형성과 장식성을 통해 남성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과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20세기 전 속옷은 몸 자체 보다는 패션의 사회적 효용성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

20세기는 패션이 신체를 발견한 시기이다. 여성복의 현대화 과정은 코르셋으로부터 육체의 해방, 사지(四肢)의 노출, 신문과 성차의 탈피, 바느질에서의 해방 등 크게 4가지 특징으로 집약되는데 이는 여성

의 달라진 사회적 위상을 반영한 것이었다³⁵⁾. 이러한 여성의 높아진 위상과 발언권은 패션에 있어서도 신체의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성을 담아내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육체의 해방과 성적인 자유, 노출에 대한 관대함이 진행된 다른 한 편에서는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함께 몸에 대한 새로운 억압이 탄생하였다. 여성의 몸은 남성적 관음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소비사회의 상품논리에 의해 다시 억압되기 시작했다. 옷이 아닌 몸 자체가 패션이 되었으며 건강하고 날씬한 몸에 대한 숭배는 상품으로서의 몸에 대한 끊임없는 관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유행이라는 명목 아래 이를 수 없는 이상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0년대 중후반 패션계에 몰아친 44 사이즈, 해외의 제로(0) 사이즈 열풍은 광고와 대중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발신되는 마른 몸에 대한 강박과 이상화가 낳은 국제적 기현상이었다. 몸은 다시 문화적 갈등의 현장이 된 것이다.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과 몸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환기시킨다. 골티에는 <그림 23>에서 여성의 몸에 가해진 역사적 폭력을 고찰하고 있다. 속살이 투명하게 노

출되는 소재의 블라우스와 타이트한 스커트, 반쪽만 제작된 코르셋은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착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맥퀸은 <그림 24>에서 일군의 남성들에 의해 무리에서 배제되고 쫓기는 모델을 통해 여성성과 몸에 대한 가부장 사회의 배척과 억압을 상징화하고 있다.

한편 알렉산더 맥퀸의 <그림 25>와 돌체&가바나의 <그림 26>은 엉덩이를 과장되게 부풀린 스타일을 통해 ‘말라야 아름답다’는 이 시대의 상업주의적 명제가 사실은 여성성 혹은 여성미의 진정성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며 모든 생명의 모태로서 여성성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성찰을 보여준다.

4. 파워 페티시(Power Fetish)

본 연구에서 파워 페티시(power fetish)는 여권 신장을 뜻하는 우먼 파워와 성도착증을 표현하는 페티시의 합성어로 사용되었다. 페티시 패션의 어법을 따르되 내포된 의미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아니라 여성의 능동적인 성적 탐험을 뜻한다.

페티시 패션은 의복을 매개체로 하여 성도착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패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레



<그림 26> 돌체 & 가바나 07SS -firstviewkorea
 <그림 27> 구찌 01SS -firstviewkorea
 <그림 28> 발렌티노 04FW -firstviewkorea
 <그림 29> 디스퀘어드2 07FW -firstviewkorea
 <그림 30> 안소피 백 08FW -firstviewkorea

이스 장식의 코르셋, 브라, 가터 벨트, 하이힐 등 신체를 죄고 압박하는 아이템들과 고무, 가죽, PVC 등 번들거리고 특유의 냄새를 가진 소재들이 페티시 패션을 구성한다. 이러한 페티시 아이템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베르사체, 티에리 뒤편 등 서구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기도 했다³⁶⁾.

페티시 패션의 품목들은 대부분 속옷 아이템들이었으므로 속옷의 겉옷화를 촉진한 중요한 패션 문화로 볼 수 있다. 마돈나가 코르셋 룩을 입고 무대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페티시스트들은 검정 가죽 서스펜더 벨트나 코르셋 등을 겉옷으로 입고 도착적인 성의 향연을 즐겼다. 이들의 이색 취향은 스트리트나 나이트클럽을 거점으로 발전하였으며 주류 패션 산업은 이를 발 빠르게 채택해 속옷의 겉옷화를 중요한 패션 현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페티시 자체가 남성이나 여성을 편 가르지는 않지만 페티시즘을 제공하는 품목들이 주로 여성의 신체나 속옷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페티시 패션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복식 착용 동기를 이성의 유혹으로 보는 패션 에로티시즘적 관점에서는 여성의 몸은 노출과 은폐를 통해 관능성을 증폭하는 수단이며 남성의 관음적 시선에 대상물로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도래와 함께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가장 상징적인 페티시 아이템인 코르셋조차 재해석 되었다. 데이비드 쿤즐(David Kunzle)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젊은 여성들이 코르셋 착용에 집착한 이유를 당시 독신녀의 증가와 출산기피 현상, 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남편감을 사로잡기 위한 욕구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하며 코르셋은 성적 대상화 보다는 자신의 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에서 더 착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19세기 중후반 코르셋을 가장 열렬히 옹호한 여성들이 실제로는 지위상승의 욕구가 가장 강한 여성들이었으며, 코르셋 착용은 정숙과 자식의 생산이라는 요구와 분명히 구별되는 자기 규정적인 성(性)을 의미하므로 해방적인 의복이라고 선언하였다³⁷⁾.

2000년대 패션 현상은 쿤즐의 주장을 훌륭하게 뒷받침한다. 패션 컬렉션에 등장하는 페티시적인 표

현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소외시키는 대신 여성 자신의 능동적 채택으로 보인다. 페티시 자체의 도착성은 주류 패션산업에 편입됨에 따라 최소화되고 여성적 관능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성에 대한 자율성을 회복하면서 노출에 대한 시각도 이전의 풍기문란이나 성폭력을 유도한다는 부정적 의미에서 당당한 자신감과 여성성의 과시라는 쪽으로 크게 선회하였다.

구찌의 코르셋드레스 <그림 27>은 파학성 보다는 오히려 도발적인 유혹자로서 여성의 강력함을 보여준다. 서스펜더 벨트에서 영감을 얻은 발렌티노의 <그림 28>은 부드러움 속에 세련된 관능을 표현하며 디스퀘어드2의 <그림 29>는 메탈릭 소재를 이용해 도미나트릭스(dominatrix, 여성지배자) 이미지를 시각화했다. 안느 소피 백의 <그림 30>은 여러 개의 송(thong)³⁸⁾ 팬티를 이어 붙인 레이어드 아이템을 통해 이 도발적인 페티시 품목에 대한 일반인들의 두려움이나 관음주의를 노골적으로 풍자하며 강력한 여성 파워를 표현하고 있다.

V. 속옷의 겉옷화 현상의 사회문화적 의미

엘리자베스 윌슨(Elizabeth Wilson)은 “복식은 신체에 대한 문화적 은유(cultural metaphor)이며 복식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문맥 안에 신체를 재현할 수 있다”³⁹⁾고 하였다. 곧 패션 현상이란 신체를 보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시선을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속옷의 겉옷화 현상의 미적 특성을 토대로 이 현상에 담긴 21세기 패션과 신체의 관계 및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1. 신체의 권력화와 젊은 육체의 숭배

영국의 사회학자 크리스 쉐링(Chris Shilling)은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 몸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의 일부로서 수행되어야하고 완성되어야 할 일종의 ‘프로젝트’로 간주된다고 지적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투자함으로써 자아표현 수단을 갖게 되고 멋진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갖추게 되었다고 여긴다. 젊고 잘 꾸여진 육체에 전례 없는 가치를 두는 시대에 자아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몸의 외적 영역, 즉 표면이다⁴⁰⁾.

2000년대 신체 혹은 외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소비 자본주의의 도래 및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근면 검약을 중시하던 산업자본주의가 쇠퇴한 반면 노동시간의 단축과 생산성 급증에 따라 여가가 증가하면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은 물론 열심히 소비하도록 장려되는 소비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했다. 소비는 죄악이 아니라 미덕이 되었으며 육체는 다이어트산업과 화장, 패션산업에 황금어장을 제공하는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으로 물론 숭배되기 시작하였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이에 따른 고령화 사회도 신체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사회적 요인이 됐다. 의학과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젊은이와 노인을 가르는 기준은 이제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에 기초하지 않는다. 신체가 규칙적인 운동, 개인적인 건강 프로그램, 몸매 관리 프로젝트, 잘 조화된 옷차림과 화장법, 심지어 성형수술 등을 통해 얼마든지 조율, 개조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인식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의 젊음을 추구하고 신체 자체에 몰입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소비사회와 인구구조 변화의 상호 상승작용은 젊고 날씬하며 성적 매력이 넘치는 신체를 이상화하였다. 이러한 몸은 부르디외(P.Bourdieu)가 갈파한 바, 사회적 교환가치를 가진 육체자본으로서, 시간의 흔적을 성공적으로 거스르지 못한 늙고 병든 몸이나 자기 신체에 대한 조절 능력의 결여를 보여주는 뚱뚱한 몸 보다 우월한 교환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다.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외모 지상주의와 그 신념들, 즉 키 크고 잘 생긴 남성이 돈을 더 많이 벌며, 예쁘고 몸매가 훌륭한 여성이 계급 이동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등은 이러한 자본으로서의 몸의 위상을 보여준다.

몸의 권력화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젊음이 지상명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영 제너레이션의 탄생이 패션을 이전 시대의 고답적인 쿠틀르 의상실

에서 스트리트의 자유분방한 공간으로 끌어내고 젊은이들을 패션산업의 최대 소비자로 위치지운 것⁴¹⁾에서 보듯 소비문화 속에서 청춘의 매력은 상품미학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젊음이 자본에 의해 판매기능으로 파악되는 반면 상대적 개념인 늙음은 폐기되거나 축출된다⁴²⁾.

속옷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겉옷화 하여 입는 현상은 젊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시화하는 훌륭한 전략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속옷은 몸의 연장이며 몸 자체이다. 몸을 은폐함으로써 오히려 노출하는 속옷의 상징성은 그 자체로 몸의 외형적 특질과 성(性)적 연상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육체의 숭배를 표현한다.

2. 알파걸의 탄생과 관능적인 신체의 부활

여성의 이상적 신체미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 강박관념과 선입견들을 반영한다. 특히 마른 몸에 대한 강박은 20세기 말 여성들에게 유행병이 되다시피 한 신경성 거식증을 유발하였다⁴³⁾. 흔히 식욕은 성욕과 동의어가 되며, 성의 통제는 가부장제의 준거 규범이었다. 여성은 남자의 시선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데 익숙해진다.

그러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양상은 크게 바뀌었다. 마른 것만으로는 아름답지 않으며 관능적인 몸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다. 깡마른 몸에 모호한 섹슈얼리티로 1990년대를 휩쓸었던 케이트 모스와 같은 모델도 2000년대 들어 출산을 겪으면서 보다 성적인 매력이 강조된 볼륨감을 선보였다. 패션은 여성 신체를 노출하는 데 훨씬 관대해졌다. 여성성의 상징인 가슴이 클리비지 룩(cleavage look)⁴⁴⁾의 유행을 통해 노출되고 속옷의 겉옷화 아이템인 란제리 룩이 로맨티시즘의 열풍과 함께 거리를 휩쓸었다.

돌체&가바나는 한 패션잡지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의 여성들이 볼륨 있는 가슴을 갖기 위해 보톡스를 맞고 실리콘을 주입하고 있다. 볼륨 있는 몸매를 원하는 여성이 늘고 있고 그걸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 편이 훨씬 섹시하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다⁴⁵⁾. 한국의 한 성형외과는 1994년 가장 선호된 가슴 성형 보형물의 부피는 135cc였으나 2003

년에는 265cc로 두 배 가까이 커졌다고 보도하였다⁴⁶⁾.

여성 신체의 관능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유행은 미국 하버드대학의 임상심리학자 댄 킨들런(Dan Kindlon)이 ‘새로운 사회계층’이자 ‘새로운 여자의 탄생’이라고 주장한 알파걸(alpha girl) 신드롬과도 맞물려 있다. 킨들런은 알파걸을 ‘공부, 운동, 리더십, 모든 면에서 남학생들을 능가하는 엘리트 소녀들’로 정의한 뒤 “알파걸은 재능 있고 욕심 많고 자신감 있으며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제약을 느끼지 않는다. 섹스와 남녀역할, 의존과 독립, 지배와 복종 같은 전통적인 사회 구도들은 알파걸과는 별 관계가 없다. 알파걸들은 이전에 남자들이 진출하던 분야에 진출 할 때 여자라는 점이 불리하기 보다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정도로 영리하다”⁴⁷⁾고 설명하였다.

알파걸의 대두는 미래학자 나이스비츠가 일찍이 21세기의 특성으로 제시한 3F, 즉 감성(Feeling) 가상(Fiction) 여성(Female)의 부상과 맞물리면서 사회 전반에 여성적인 것에 대한 매혹을, 여성에게는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자부심과 자유로운 표현 의지를 불어넣었다. 신체 노출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가 증가하고, 신체를 죄고 구속하는 대신 자유롭게 풀어놓음으로써 육체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웰빙트렌드의 확산과 맞물리면서 여성 신체의 제 구성요소를 드러내 강조하는 유행에 힘을 보탤다. 속옷의 겉옷화에 나타나는 관능성과 파워 페티시, 성 정치성은 알파걸 트렌드에 의해 한껏 고양된 여성들의 자기애와 자신감의 표출이었다.

전 세기 말의 겉옷화 현상이 금기에 도전한다는 과다한 자의식을 요구했다면, 오늘 날의 속옷 패션은 여성이 자기 신체를 즐기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오늘날 진짜 저항하는 여성의 신체는 성적 대상화(objectification)와 싸우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성적 대상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캐시 슈윙텐버그(Cathy Schwichtenberg)가 말했듯이, ‘시물라시옹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몸, 즉 성 차이의 구조물이라는 고정된 개념에 도전하고, 여성의 몸을 다양한 목소리의 다양한 정체성의 흐름 속에서 재구축할 수 있는 에로틱한 정치학

을 사용하는 몸’이다⁴⁸⁾.

3. 디지털사회와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2000년대의 사회문화적 특성 중 하나는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디지털 문화의 확산이다. 디지털문화는 문화와 컴퓨터 전자기술이 융합된 전자문화로 가상 세계는 물론 현실에서도 하이퍼(hyper-) 현상을 만들어낸다. 하이퍼는 접두어로 쓰였을 때 ‘초월한 혹은 무엇에서 확대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하이퍼리얼(hyper-real)은 현실의 모델을 따라 형성됐으며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뜻하게 된다⁴⁹⁾.

신체미에 있어서 하이퍼리얼 현상은 디지털 가상 공간의 물질적 제약성, 즉 컴퓨터 디스플레이어의 작은 규격 안에서 공간감과 리얼리티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가상세계의 주요 소비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에서 출발, 알파걸 신드롬이나 신체의 물신화, 권력화와는 꼭 다른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 여성 신체의 특성을 극단적으로 과장함으로써 현실이 도달하기 어려운 하이퍼 리얼 바디를 이상화하고 현실에서 박탈당한 관음적 욕구를 가상의 공간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노골적인 성적 암시를 위해 가상세계 속의 여주인공들은 빠짐없이 터질듯이 부푼 가슴과 개미허리, 탄력 있는 엉덩이, 무엇보다 가늘고 긴 다리를 갖춘 형태로 제시된다. 가상 속의 그녀들은 남성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섹스머신의 몸을 상징한다. 이때 그녀들의 옷, 노골적으로 속옷의 겉옷화를 차용한 옷들은 표면적으로는 여러 벌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피감이나 표면 질감은 완전히 무시됨으로써 결국 단 한 장의 매우 얇은 천이자 제 2의 피부로서 관능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이퍼리얼 바디 이미지는 가상의 공간에서 힘을 얻어 다시 현실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속옷의 겉옷화는 가상공간의 관능적인 신체 이미지를 현실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VI. 결론

이상과 같이 2000년대 첫 10년 속옷의 겹옷화 현상의 미적 특성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속옷의 겹옷화 현상을 관능성(eroticism)의 표현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이 현상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간과한 단순화의 오류이다. 이러한 단순화는 패션의 본질을 유혹으로 보고 여성을 대상화하는 패션에로티시즘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겹옷의 지위를 획득한 속옷패션은 유혹 보다는 자기애적인 유희의 성격이 더 강조된다.

둘째, 속옷의 겹옷화 현상은 여성의 자기 신체와 성에 대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권 선언을 의미한다. 2000년대 속옷의 겹옷화 현상이 이전 세기의 것과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남성에 의해 억압되고 규제됐던 여성의 성이 여성 자신의 통제권 아래 들어왔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여성의 세기로 불리는 21세기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여성 리더십이 강조되고 알파걸 신드롬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몸은 성적 대상화와 싸우는 대신 성적 대상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에로틱한 정치학의 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속옷의 겹옷화 현상이 표출하는 성정치성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셋째, 속옷의 겹옷화 현상은 신체의 몰신화 또는 권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소비자본주의의 한 표상이다. 2000년대 첫 10년은 소비사회가 고도성장하면서 신체의 자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름다운 외모와 젊고 성적 매력이 넘치는 신체는 남녀 공히 성공이나 생존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신체의 연장선인 속옷의 노출과 겹옷화는 성적 매력의 강조와 잘 조형된 몸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채용되었다. 속옷의 겹옷화가 드러내는 파워 페티시 특성은 신체가 권력으로서 군림하는 것을 상징한다.

넷째, 속옷의 겹옷화 현상은 고도의 디지털사회에서 가상공간의 신체 이미지가 오히려 현실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하이퍼리얼 현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속옷의 겹옷화 현상을 여성의 관능미 표현을 위한 디자인 소재로 파악하는 기존의 단선적

접근을 지양하고 이 현상이 갖는 사회문화적, 여성주의적 함의를 포괄적으로 고찰한 것에 의의가 있다. 속옷의 겹옷화를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능동적 주권 획득이자 디지털 소비문화 시대의 신체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통로로 파악한 것은 기존의 연구와는 크게 차별화되는 결과로 향후 여성의 신체와 패션현상을 분석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조규화, 이희승(2004), *패션미학*, 수학사, pp.31-34.
- 2) "모드의 투명감을 표현하는 속옷 패션", (2001. 11. 21), *삼성디자인네트*.
- 3) 윤진아(2006), "여자 속옷의 겹옷화 현상과 패턴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지연(2002), "20세기 이상미에 따른 여성속옷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양숙희, 이의정(1999), "패션에 나타난 페티시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2), pp.272-283.
- 6) 변소정(1999),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의상디자인 연구:속옷의 겹옷화 현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조영란(2004), "의상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속옷의 겹옷화 현상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고영아, 최현숙(2000), "Corset의 Supra현상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복식*, 50(4), pp.165-180.
- 9) 이상례(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겹옷화 현상", *복식*, 35, pp.325-341.
- 10) 이미지 선별작업에는 본 연구자와 패션전공 대학원생 1명, 패션정보업체 직원 1명 등 3명이 참여했다.
- 11) (주)PFIN(대표 이정민)은 온라인 패션정보포털 퍼스트뷰코리아(firstviewkorea.com) 운영체로 본 연구의 학술적 성격을 감안하여 해외컬렉

- 선 자료를 무상 제공하였다.
- 12) 조규화(1995), *복식사전*, 경춘사, pp.211-212.
 - 13) Joanne Entwistle(2000), *The Fashioned Body: Fashion, Dress and Modern Social Theory*, Cambridge: Polity Press, p.202.
 - 14) Richard Martin · Herold Koda(1993), *Infra-Apparel*,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51.
 - 15) Harold Koda(2001),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60.
 - 16) "겉옷으로 입을 수 있는 화려한 속옷", (2003. 11. 11), *경향신문*, p.34.
 - 17) "속옷 같은 겉옷, 겉옷 같은 속옷", (2004. 4. 16), *동아일보(Style)*, p.6.
 - 18) 섹시쿠키 뷔스티에, (주)좋은사람들 제공
 - 19) "칼라브라곤", 자료검색일 2010. 1. 4, 자료출처 <http://www.pinkfin.co.kr>
 - 20) Richard Martin · Herold Koda, op.cit., p.10.
 - 21) "국립국어원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 자료검색일 2009. 11. 15, 자료출처 <http://124.137.201.223/main.jsp>
 - 22) Richard Martin · Herold Koda, op.cit., p.94.
 - 23) 김민수(1994), *모던디자인 비평: 포스트모던, 해체의 이해*, 안그라픽스, pp.176-177.
 - 24) John Story(1994),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역), 현실문화연구, pp.128-131.
 - 25) 한국브리태니커회사(2002),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제 15권*, p.296.
 - 26) J. C. Flügel(1930),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p.26.
 - 27) James Laver(1992), *Costume & Fashion*, New York: Thames and Hudson, pp.261-269.
 - 28) Johan Huizinga(1993), *호모 루덴스*, 김윤수(역), 까치, pp.9-13.
 - 29) 조규화, 이희승, op.cit., pp.247-248.
 - 30) difference는 자크 데리다가 기호의 분리된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 만든 조어로 '지연시 키다(defer)'와 '다르게 하다(defer)'의 두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John Story, op.cit., p.128.
 - 31) K.해리스(1988),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오병남 외(역), 서광사, p.123, 오창섭(1997), *디자인과 키치*에서 재인용, 토마토, p.119.
 - 32) M.칼리니스쿠(1994), *모더니티의 다섯얼굴*, 이영옥 외(역), 시각과 언어, p.292, Ibid., p.120.
 - 33)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1980년대에 윌리엄 김슨의 SF소설 '뉴로맨서'에서 처음 제 기된 개념이다. 오늘날 인터넷 문화의 발달은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 만큼이나 현실적 이고 물질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남경태(2006), *개념의 사전*, 들녘, pp.11-13.
 - 34) Ibid., pp.346-348.
 - 35) 조규화(1988), *복식미학*, 수학사, p.275.
 - 36) Joanne Entwistle, op.cit., pp.191-192.
 - 37) David Kunzle(1982), *Fashion and Fetishism : A Social History of the Corset, Tight-Lacing and Other Forms of Body-Sculpture in the West*, Totowa : Rowman and Littlefield, pp.40-45.
 - 38) thong은 성기를 커버하기 위해 입는 작은 천 조각으로 허리선에 가는 끈으로 고정돼 있다.(A thong is a narrow band of cloth that is worn between a person's legs to cover up his or her sexual organs, and that is held up by a piece of string around the waist.) "네이버 영영사전", 자료검색일 2009. 10. 5 자료출처 <http://endic.naver.com/>
 - 39) Juliet Ash, Elizabeth Wilson(1993), *Chic Thrills : A Fashion Reader*, Berkely &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6.
 - 40) Chris Shilling(1999), *몸의 사회학*, 임인숙(역), 나남출판, pp.20-29.
 - 41) Yvonne Connikie(1990), *Fashions of A Decade: The 1960s*, London: B.T.Batxford Ltd. p.40.
 - 42) Wolfgang F. Haug(1991), *상품미학비판*, 김문환(역), 이론과 실천, P.153.
 - 43) Katie Conboy et al.(2001),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의 상품화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 고경하 外(역), 한울, pp.211-217.

- 44) cleavage는 가슴 골을 지칭하는 용어로 클리비지 룩은 가슴 부위를 깊숙이 파서 가슴 골과 가슴의 융기를 드러내 보이는 스타일을 말한다.
- 45) “다이어트, 그만해도 될까요?”, (2007. 6), *W Korea*
- 46) “클리비지 룩 인기”, (2003. 8. 1), *한국일보*, p.C8.
- 47) Dan Kindlon(2006), *Alpha Girls : Understanding the New American Girl and How She is Changing the World*, New York : Rodale, pp.6-7.
- 48) Susan Bordo(199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게*, 박오복(역), 또 하나의 문화, p.325.
- 49) Steven Best(1995), *탈현대의 사회이론: 탈현대의 비판적 질의*, 정일준(역), 현대미학사, p.157.

접수일(2009년 11월 5일)

수정일(1차 : 2009년 12월 30일 2차 : 2010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2일)